

2026년 6월 25일

#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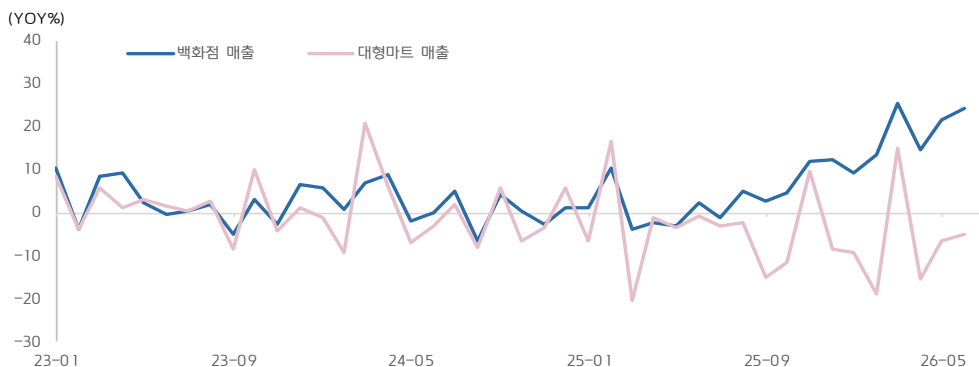
## 경기 회복의 차별화와 재정 확대 기조

5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했다. 백화점(24.5%)과 편의점(5.9%)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5.1%)와 준대규모점포(-8.0%)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의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경기 전반의 회복보다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 5천 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부진하다. 반면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이처럼 국내 경기는 전반적인 회복보다는 업종과 계층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은 기업이익 개선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통산업과 내수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까지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보완과 취약계층 지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 확대 기조의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여 장기 시장금리 상승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한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Macro Snapshot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